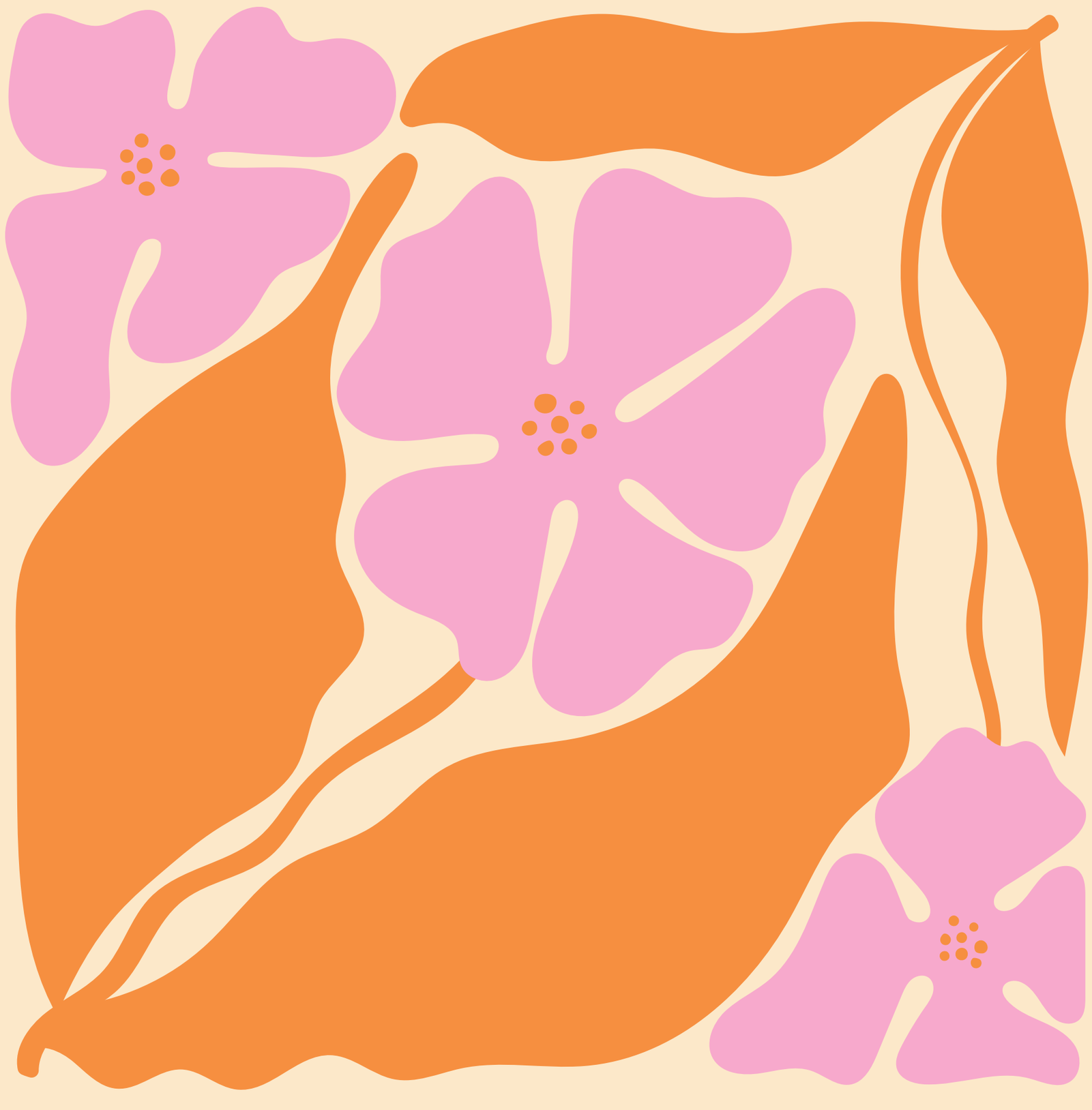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4. 8. 14.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 **새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 **다 같 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2절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 도 자**

성경 봉독 ---------- **창세기 8장 15~20절** ---------- **다 같 이**

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시종일관 그 과정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다 끝날 즈음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큰 난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제 방주의 문을 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본문 내용인 방주 하선의 과정에서 노아는 그의 견고한 믿음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노아의 방주 하선을 통해 가정과 개인의 삶에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기다린 믿음

창세기 8장 6~8절 "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노아가 새들을 여러 번 날려 보낸 것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칠흑같은 암흑 속에서 요란하게 부딪치는 빗소리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며 공포를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40일간의 홍수가 끝난 뒤에도 200일 가까이 방주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드넓은 산야를 마음껏 거닐던 자유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이런 시련의 벼랑에서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 보냈고 이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비둘기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갈구하는 그의 믿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방주에 갇혀 살다 보면 심판이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법도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낸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0~12절 "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분의 용서를 고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그 심판의 종결을 점검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기대대로 심판이 끝났음과 땅이 말랐음을 비둘기가 물어온 올리브 잎사귀를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 하여 고난이 찾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구할 때 다시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대한 믿음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믿음

본문 15~16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비둘기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았던 노아는 방주 문이 열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짓게 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대홍수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심판의 끝도 하나님 한 분 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삶의 운전자가 아닙니다. 문제가 닥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급한 마음에 나의 경험과 지식 통계와 이성을 의지하여 앞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들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

이제 노아는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맨 처음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주 흥미 있는 놀이를 한 것도 아니요, 유물 발굴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하여 천막을 만들거나 집을 지은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직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자신과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을 피하여 구원받은 감격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우리는 바쁘고 정신없는 시대에서 조급하게 사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감사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 눔 ---------- 다 같 이

1 노아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었나요?

2 살면서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이 분주해졌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기다렸나요?

3 노아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중보기도 — 담임 목사님을 위해 — 다 같 이

1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2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도록
3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통풍이 재발하지 않도록
4 성령의 능력과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도록
5 목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도록

마무리 기도 —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려 복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